

중남미 국가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과 정책적 시사점

홍성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
미주팀 부연구위원
swhong@kiep.go.kr

이승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
미주팀 부연구위원
seungholee@kiep.go.kr

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
미주팀 선임연구원
jokim@kiep.go.kr

박미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
미주팀 전문연구원
misookp@kiep.go.kr

윤여준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
yoonyj@pusan.ac.kr



차 례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2. 조사 및 분석 결과
3. 정책 제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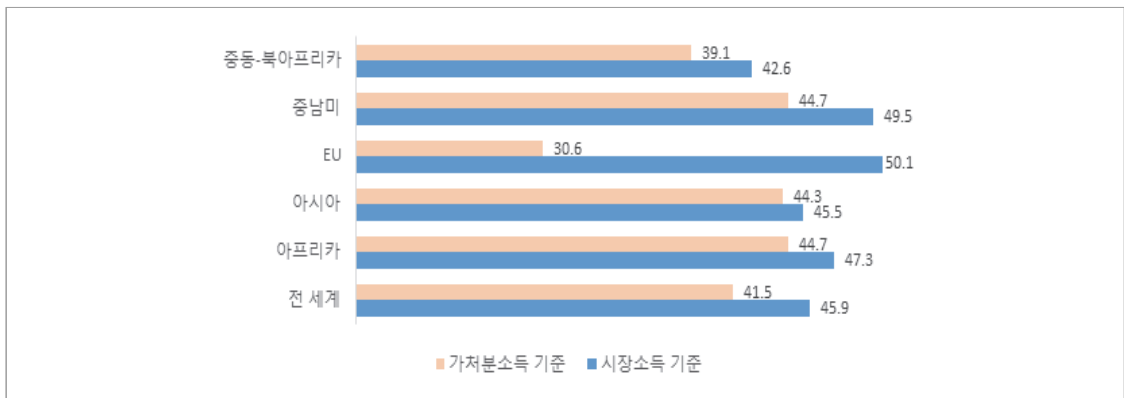
주요 내용

- ▶ 중남미의 소득불평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.
 - 2019년 10월에 발생한 칠레의 대규모 시위, 2021년 4월에 발생한 콜롬비아 대규모 시위의 기저에는 고질적인 양극화와 빈부격차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자리잡고 있음.
- ▶ 칠레, 멕시코, 브라질 정부에서 제공하는 개인 및 가구 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별·교육수준별 소득불평등을 분석한 결과,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,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양상은 국가마다 상이하였음.
 - 칠레와 브라질에 비해 멕시코의 성별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음.
 - 한편 칠레, 멕시코와 달리 브라질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별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음.
 - 교육수준별 소득불평등에 대한 분석결과 칠레와 브라질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격차가 감소하였으나, 멕시코에서는 뚜렷한 추세가 관찰되지 않았음.
- ▶ 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불평등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칠레의 저소득층은 줄지 않는 소비와 줄어든 소득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였을 가능성이 있음.
 - 특히 주거비, 주거관리비, 수도광열비에 대한 저소득층의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.
- ▶ 중남미의 소득불평등 양상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바, ODA 사업과 같은 對중남미 정책 시행 시 정책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국가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중남미의 소득불평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음.
 - [그림 1]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44.7로 아프리카와 동일한 수준이며, 전 세계 평균인 41.5를 상회함.
 - 중남미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심각성은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.
 - 2019년 10월 발생한 칠레의 대규모 시위, 2021년 4월 발생한 콜롬비아의 대규모 시위의 기저에는 고질적인 양극화와 빈부격차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자리잡고 있음.

그림 1. 전 세계 지역별 지니계수(2017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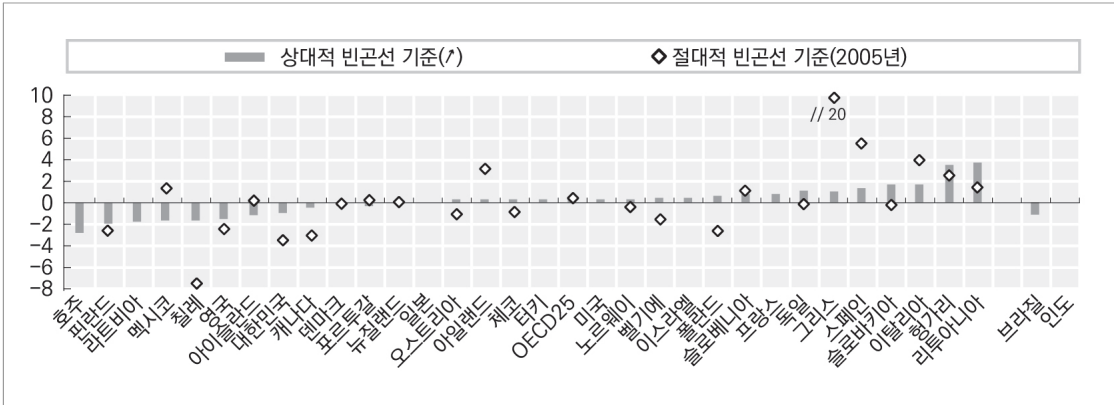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ruegel database, "Global and regional Gini coefficients," <https://bruegel.org/publications/datasets/global-and-regional-gini-coefficients/>(검색일: 2021. 7. 12).

- 본 연구의 목적은 중남미 개별 국가의 불평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소득불평등과 소비불평등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에 있음.
 - 많은 기존 연구들이 소득불평등과 관련하여 중남미 개별 국가들에 대한 지니계수 이외에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.
 -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상대적 빈곤이 아닌 절대적 빈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해당 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.
 - [그림 2]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서로 다를 수 있는바, 단일 지표만으로 해당 국가의 빈곤이나 불평등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.

그림 2. 국가별 절대적·상대적 빈곤율

(단위: %p)



주: 막대 그래프와 점이 각각 의미하는 것은 2007~16년 사이에 상대적 빈곤율과 절대적 빈곤율의 변화를 나타냄.
자료: OECD(2019), "Society at a Glance 2019: OECD Social Indicators."

- 본 연구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개인 단위의 원자료(raw data)를 제공하는 3개국 칠레, 멕시코, 브라질을 선정하여 소득분위별 소득불평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, 동 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소득 및 소비 불평등 지표를 제시함.

2. 조사 및 분석 결과

1) 중남미 3개국(칠레, 멕시코, 브라질)의 소득불평등 결정요인 분석

①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

● 분위회귀분석(quantile regression analysis)을 통해 인구·사회·경제학적 특성이 경상소득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소득분위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별로 비교함.

- 인구·사회·경제학적 변수로서 성별, 연령, 교육수준, 고용형태,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소득분위별로 종속변수인 경상소득과 각 설명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함.

○ 분위회귀분석은 인과관계를 추정하지 않지만, 만약 소득분위별로 동 설명변수들에 대한 추정 계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면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소득분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함.

● 실증분석을 위해 칠레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구예산조사(Encuesta de Presupuestos Familiares), 멕시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구소득지출조사(Encuest Nacional de Inresos y Gastos de los Hogares), 브라질 지리통계청이 제공하는 가구예산조사(Pesquisa de Orcamentos Familiares) 데이

터를 활용

- 칠레의 가구예산조사는 제4차 조사인 1987~88년부터 제8차 조사인 2016~17년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
- 멕시코의 가구소득지출조사는 1984~2018년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
- 브라질 가구예산조사는 1987~88년, 1995~96년, 2002~03년 데이터를 활용
- 분석 대상은 노동가능인구인 만 15세~64세 중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임.

② 실증분석 결과

● [표 1]에 따르면 칠레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.

- 예를 들어 2016~17년 9분위에서 여성인 경우 월평균 경상소득이 남성에 비해 28% 낮은 것으로 분석됨.
- 2006~07년을 제외하면 성별 간 소득격차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.

표 1. 칠레: 성별과 월평균 경상소득

연도	소득분위	$\tau = 0.1$	$\tau = 0.25$	$\tau = 0.5$	$\tau = 0.75$	$\tau = 0.9$
1987~88		-0.20*** (0.04)	-0.27*** (0.03)	-0.29*** (0.02)	-0.37*** (0.03)	-0.31*** (0.04)
1996~97		-0.28*** (0.02)	-0.31*** (0.02)	-0.30*** (0.02)	-0.32*** (0.02)	-0.31*** (0.03)
2006~07		-0.33*** (0.02)	-0.30*** (0.01)	-0.27*** (0.01)	-0.28*** (0.01)	-0.29*** (0.02)
2011~12		-0.33** (0.03)	-0.28*** (0.02)	-0.33*** (0.02)	-0.31*** (0.02)	-0.37*** (0.02)
2016~17		3.73 (2.59)	-0.10*** (0.01)	-0.19*** (0.01)	-0.24*** (0.01)	-0.28*** (0.02)

- 주: 1) 괄호 안의 값은 bootstrap 표준오차임.
 2) 계수 값은 기준 집단(reference group)을 남성으로 하였을 때 여성의 계수를 의미함.
 3) *, **, ***은 각각 유의수준 10%, 5%, 1%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.
 4) 회귀식에서 통제된 다른 변수들, 연령, 교육수준, 고용형태, 거주지역 등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동 표에서 제시하지 않았음.

● [표 2]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여성의 월평균 경상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, 칠레보다 멕시코에서 성별 소득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.

- 예를 들어 멕시코의 2016년 소득 2.5분위에서 추정된 계수는 -0.48인 반면, 칠레에서는 2016~17년에 추정된 계수가 -0.10으로 나타나 멕시코의 경우 성별 격차가 더욱 심각
- 또한 멕시코의 성별 간 소득격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소득분위에서 심화되어 온 경향을 보임.

표 2. 멕시코: 성별과 월평균 경상소득

연도	소득분위	$\tau = 0.1$	$\tau = 0.25$	$\tau = 0.5$	$\tau = 0.75$	$\tau = 0.9$
2005		-0.32*** (0.03)	-0.44*** (0.02)	-0.36*** (0.01)	-0.34*** (0.01)	-0.33*** (0.02)
2006		-0.47*** (0.03)	-0.57*** (0.02)	-0.42*** (0.01)	-0.35*** (0.01)	-0.35*** (0.02)
2008		-0.56*** (0.04)	-0.45*** (0.01)	-0.39*** (0.01)	-0.36*** (0.01)	-0.36*** (0.01)
2010		-0.36*** (0.03)	-0.35*** (0.01)	-0.33*** (0.01)	-0.29*** (0.01)	-0.28*** (0.01)
2012		-0.48*** (0.06)	-0.49*** (0.02)	-0.42*** (0.02)	-0.37*** (0.02)	-0.36*** (0.02)
2014		-0.55*** (0.03)	-0.44*** (0.02)	-0.39*** (0.01)	-0.35*** (0.01)	-0.34*** (0.02)
2016		-0.63*** (0.02)	-0.48*** (0.01)	-0.41*** (0.01)	-0.39*** (0.01)	-0.39*** (0.01)
2018		-0.60*** (0.02)	-0.45*** (0.01)	-0.40*** (0.01)	-0.36*** (0.01)	-0.37*** (0.01)

주: 1) 괄호 안의 값은 bootstrap 표준오차임.
 2) 계수 값은 기준 집단(reference group)을 남성으로 하였을 때 여성의 계수를 의미함.
 3) *, **, ***은 각각 유의수준 10%, 5%, 1%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.
 4) 회귀식에서 통제된 다른 변수들, 연령, 교육수준, 고용형태, 거주지역 등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동 표에서 제시하지 않았음.

표 3. 브라질: 성별과 월평균 경상소득

연도	소득분위	$\tau = 0.1$	$\tau = 0.25$	$\tau = 0.5$	$\tau = 0.75$	$\tau = 0.9$
2002~03		-0.47*** (0.02)	-0.49*** (0.01)	-0.45*** (0.02)	-0.55*** (0.01)	-0.73*** (0.02)
2008~09		-0.44*** (0.01)	-0.50*** (0.01)	-0.41*** (0.01)	-0.46*** (0.01)	-0.55*** (0.01)
2017~18		-0.29*** (0.01)	-0.42*** (0.01)	-0.30*** (0.01)	-0.40*** (0.01)	-0.56*** (0.02)

주: 1) 괄호 안의 값은 bootstrap 표준오차임.
 2) 계수 값은 기준 집단(reference group)을 남성으로 하였을 때 여성의 계수를 의미함.
 3) *, **, ***은 각각 유의수준 10%, 5%, 1%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.
 4) 회귀식에서 통제된 다른 변수들, 연령, 교육수준, 고용형태, 거주지역 등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동 표에서 제시하지 않았음.

- [표 3]의 브라질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여성의 월평균 경상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, 멕시코와는 대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성별 간 소득격차가 감소하였음.
- [표 4]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경상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득 9분위를 제외한 다른 소득분위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정계수 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바,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격차가 점차 완화된 경향을 보임.

표 4. 칠레: 교육수준과 월평균 경상소득

연도	소득분위				
	$\tau = 0.1$	$\tau = 0.25$	$\tau = 0.5$	$\tau = 0.75$	$\tau = 0.9$
1987~88	0.52*** (0.06)	0.73*** (0.04)	0.94*** (0.05)	1.00*** (0.03)	0.91*** (0.05)
1996~97	0.63*** (0.02)	0.70*** (0.02)	0.88*** (0.02)	0.95*** (0.02)	1.00*** (0.03)
2006~07	0.47*** (0.02)	0.67*** (0.02)	0.85*** (0.02)	1.05*** (0.02)	1.16*** (0.02)
2011~12	0.33*** (0.03)	0.47*** (0.03)	0.67*** (0.02)	0.93*** (0.03)	1.09*** (0.03)
2016~17	0.51 (0.36)	0.41*** (0.02)	0.61*** (0.01)	0.90*** (0.02)	1.02*** (0.02)

주: 1) 괄호 안의 값은 bootstrap 표준오차임.

2) 계수 값은 기준 집단(reference group)을 고등학교 재학 이상 대학 재학 미만의 개인으로 설정하였을 때 대학 재학 이상에 해당하는 계수를 의미함.

3) *, **, ***은 각각 유의수준 10%, 5%, 1%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.

4) 회귀식에서 통제된 다른 변수들, 성별, 연령, 고용형태, 거주지역 등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동 표에서 제시하지 않았음.

표 5. 멕시코: 교육수준과 월평균 경상소득

연도	소득분위				
	$\tau = 0.1$	$\tau = 0.25$	$\tau = 0.5$	$\tau = 0.75$	$\tau = 0.9$
2005	0.23*** (0.04)	0.31*** (0.02)	0.44*** (0.02)	0.55*** (0.01)	0.59*** (0.03)
2006	0.30*** (0.04)	0.35*** (0.02)	0.45*** (0.02)	0.55*** (0.02)	0.64*** (0.03)
2008	0.29*** (0.04)	0.37*** (0.02)	0.52*** (0.02)	0.63*** (0.02)	0.62*** (0.01)
2010	0.39*** (0.03)	0.36*** (0.02)	0.49*** (0.02)	0.61*** (0.02)	0.63*** (0.02)
2012	0.33*** (0.05)	0.36*** (0.04)	0.51*** (0.02)	0.58*** (0.03)	0.62*** (0.05)
2014	0.34*** (0.05)	0.38*** (0.02)	0.52*** (0.03)	0.60*** (0.02)	0.65*** (0.02)
2016	0.23*** (0.02)	0.33*** (0.01)	0.46*** (0.01)	0.58*** (0.01)	0.60*** (0.02)
2018	0.22*** (0.01)	0.27*** (0.01)	0.38*** (0.01)	0.50*** (0.01)	0.54*** (0.01)

주: 1) 괄호 안의 값은 bootstrap 표준오차임.

2) 계수 값은 기준 집단(reference group)을 고등학교 재학 이상 대학 재학 미만의 개인으로 설정하였을 때 대학 재학 이상에 해당하는 계수를 의미함.

3) *, **, ***은 각각 유의수준 10%, 5%, 1%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.

4) 회귀식에서 통제된 다른 변수들, 성별, 연령, 고용형태, 거주지역 등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동 표에서 제시하지 않았음.

- [표 5]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도 교육수준에 따른 월평균 경상소득 격차가 관찰되었으나 2008년 또는 2010년을 기점으로 경상소득의 격차가 눈에 띄게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임.
 - 예를 들어 2010년 1분위에서 대학 재학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고등학교 재학 이상 대학 재학 미만의 경제활동인구보다 39%의 소득을 더 벌었지만,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격차는 감소하여 2018년 두 그룹 간 소득격차는 22%까지 감소하였음.
- [표 6]은 브라질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, 칠레,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음.
 - 한 가지 뚜렷하게 관찰되는 추세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수준 간 월평균 소득격차가 감소한다는 것임.
- [표 7]에 따르면 칠레에서는 거주지역과 월평균 경상소득 간 관계에 뚜렷한 추세가 관찰되지 않았지만, 소득 하위계층에서는 도시 지역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을 수 있음.
 - 소득 1분위에서 2011~12년에 산티아고 외 거주자들의 경상소득은 산티아고 내 거주자들보다 4% 낮았지만, 2016~17년에는 오히려 산티아고 외 지역 거주자들의 경상소득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음.
- [표 8]은 거주지역을 인구 수로 구분했을 때 경상소득의 격차를 보여주는 표로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경상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이러한 거주지역 간 소득 격차는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.
 - 2018년 9분위의 거주지역 간 소득격차는 13%였지만, 1분위에서는 23%로 그 격차가 증가하였음.

표 6. 브라질: 교육수준과 월평균 경상소득

연도 \ 소득분위	$\tau = 0.1$	$\tau = 0.25$	$\tau = 0.5$	$\tau = 0.75$	$\tau = 0.9$
2002-03	0.85*** (0.04)	0.85*** (0.03)	0.95*** (0.02)	1.07*** (0.03)	1.15*** (0.05)
2008-09	0.68*** (0.02)	0.73*** (0.01)	0.81*** (0.01)	0.95*** (0.02)	1.09*** (0.03)
2017-18	0.54*** (0.03)	0.58*** (0.02)	0.57*** (0.01)	0.69*** (0.02)	0.82*** (0.03)

주: 1) 괄호 안의 값은 bootstrap 표준오차임.

2) 계수 값은 기준 집단(reference group)을 중출 이상 고졸 미만의 개인으로 설정하였을 때 고졸 이상 대졸 이하에 해당하는 계수를 의미함.

3) *, **, ***은 각각 유의수준 10%, 5%, 1%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.

4) 회귀식에서 통제된 다른 변수들, 성별, 연령, 고용형태, 거주지역 등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동 표에서 제시하지 않았음.

표 7. 칠레: 거주지역과 월평균 경상소득

연도	소득분위	$\tau = 0.1$	$\tau = 0.25$	$\tau = 0.5$	$\tau = 0.75$	$\tau = 0.9$
2011~12		-0.04** (0.02)	-0.02*** (0.01)	0.00 (0.01)	0.02 (0.02)	0.02 (0.02)
2016~17		2.21*** (0.73)	-0.01 (0.01)	-0.01 (0.01)	-0.01 (0.01)	0.00 (0.01)

- 주: 1) 괄호 안의 값은 bootstrap 표준오차임.
 2) 계수 값은 기준 집단(reference group)을 산티아고 거주자로 설정하였을 때 그 외 지역 거주자에 해당하는 계수를 의미함.
 3) *, **, ***은 각각 유의수준 10%, 5%, 1%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.
 4) 회귀식에서 통제된 다른 변수들, 성별, 연령, 교육수준, 고용형태 등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동 표에서 제시하지 않았음.

표 8. 멕시코: 거주지역과 월평균 경상소득

연도	소득분위	$\tau = 0.1$	$\tau = 0.25$	$\tau = 0.5$	$\tau = 0.75$	$\tau = 0.9$
2005		-0.31*** (0.03)	-0.35*** (0.02)	-0.25*** (0.01)	-0.18*** (0.01)	-0.17*** (0.01)
2006		-0.29*** (0.04)	-0.33*** (0.02)	-0.25*** (0.01)	-0.18*** (0.01)	-0.15*** (0.01)
2008		-0.50*** (0.03)	-0.32*** (0.01)	-0.22*** (0.01)	-0.17*** (0.01)	-0.17*** (0.01)
2010		-0.49*** (0.03)	-0.31*** (0.01)	-0.22*** (0.01)	-0.17*** (0.01)	-0.14*** (0.01)
2012		-0.49*** (0.02)	-0.35*** (0.02)	-0.28*** (0.02)	-0.25*** (0.02)	-0.21*** (0.03)
2014		-0.44*** (0.03)	-0.31*** (0.02)	-0.25*** (0.01)	-0.20*** (0.02)	-0.18*** (0.02)
2016		-0.32*** (0.01)	-0.25*** (0.01)	-0.21*** (0.01)	-0.18*** (0.01)	-0.15*** (0.01)
2018		-0.23*** (0.02)	-0.21*** (0.01)	-0.18*** (0.00)	-0.15*** (0.01)	-0.13*** (0.01)

- 주: 1) 괄호 안의 값은 bootstrap 표준오차임.
 2) 계수 값은 기준 집단(reference group)을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거주자로 설정하였을 때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계수를 의미함.
 3) *, **, ***은 각각 유의수준 10%, 5%, 1%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.
 4) 회귀식에서 통제된 다른 변수들, 성별, 연령, 교육수준, 고용형태 등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동 표에서 제시하지 않았음.

표 9. 브라질: 거주지역과 월평균 경상소득

연도	소득분위	$\tau = 0.1$	$\tau = 0.25$	$\tau = 0.5$	$\tau = 0.75$	$\tau = 0.9$
2002-03		-0.42*** (0.02)	-0.42*** (0.01)	-0.36*** (0.01)	-0.27*** (0.01)	-0.17*** (0.03)
2008-09		-0.33*** (0.02)	-0.39*** (0.01)	-0.30*** (0.01)	-0.25*** (0.01)	-0.21*** (0.02)
2017~18		-0.35*** (0.03)	-0.37*** (0.01)	-0.17*** (0.02)	-0.11*** (0.01)	-0.03 (0.02)

주: 1) 괄호 안의 값은 bootstrap 표준오차임.
 2) 계수 값은 기준 집단(reference group)을 도시 거주자로 설정하였을 때 비도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계수를 의미함.
 3) *, **, ***은 각각 유의수준 10%, 5%, 1%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.
 4) 회귀식에서 통제된 다른 변수들, 성별, 연령, 교육수준, 고용형태 등에 대한 계수 추정치는 동 표에서 제시하지 않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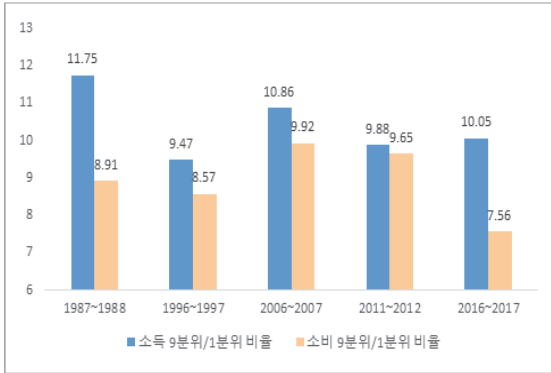
- [표 9]는 브라질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,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비도시 거주자의 소득이 도시 거주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.
 -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거의 대부분의 소득분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주지역별 소득격차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.

2) 중남미 3개국의 소득 및 소비불평등

① 소득 및 소비불평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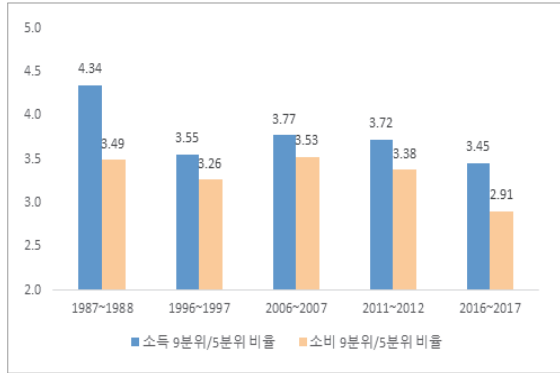
- [그림 3]과 [그림 4]를 비교할 때 칠레의 저소득층은 줄어든 소득과 줄지 않은 소비라는 이중고에 직면하였을 가능성이 있음.
 - [그림 3]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소비불평등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 반면, [그림 4]에서는 두 지표 간 패턴이 상대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남.
 - [그림 3]에서 2011~12년과 2016~17년 사이의 소득불평등도는 9.88에서 10.05로 증가하였지만 소비불평등도는 9.65에서 7.56으로 감소
 - 이러한 결과는 소득 측면에서 불평등은 악화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비 격차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, 저소득층은 소득 감소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
- 칠레와는 달리 멕시코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소비불평등 간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띠지만, 1984~89년과 1994~96년 9분위와 1분위 간 소비불평등도를 살펴보면 눈에 띄게 감소하였음.
 - 1984~89년의 소비불평등 감소는 1986년 멕시코의 GATT(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) 가입과 이후 관세율 인하와 같은 무역장벽의 철폐가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음.
 - 1994~96년의 소비불평등 감소는 1994년 NAFTA(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) 발효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음.

그림 3. 칠레: 소득불평등과 소비불평등(9분위/1분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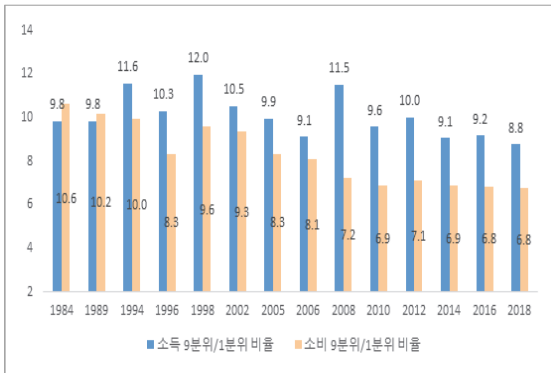
자료: 칠레의 가구예산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.

그림 4. 칠레: 소득불평등과 소비불평등(9분위/5분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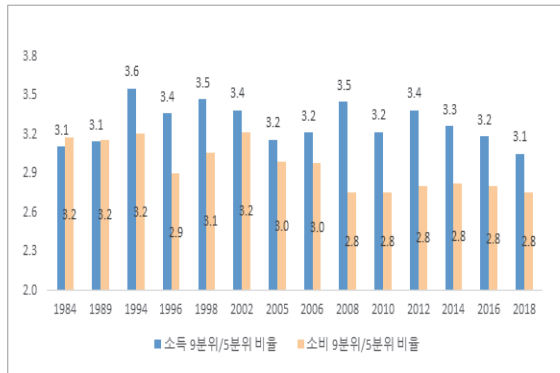
자료: 칠레의 가구예산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.

그림 5. 멕시코: 소득불평등과 소비불평등(9분위/1분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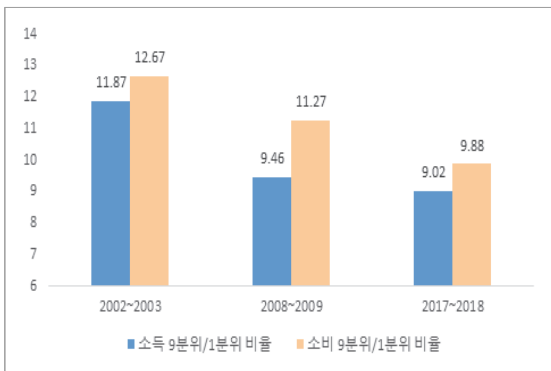
자료: 멕시코의 가구소득지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.

그림 6. 멕시코: 소득불평등과 소비불평등(9분위/5분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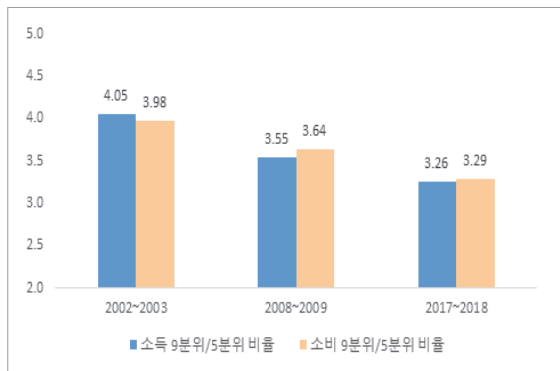
자료: 멕시코의 가구소득지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.

그림 7. 브라질: 소득불평등과 소비불평등(9분위/1분위)



자료: 브라질의 가구예산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.

그림 8. 브라질: 소득불평등과 소비불평등(9분위/5분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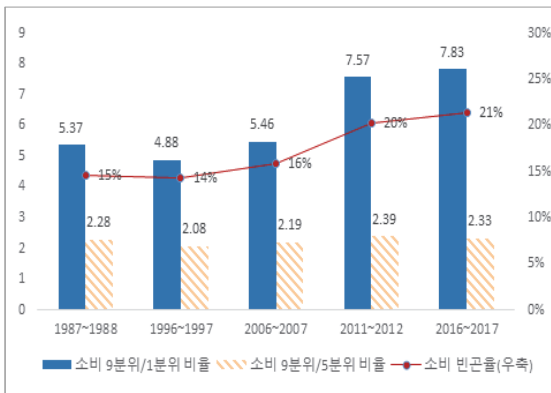
자료: 브라질의 가구예산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.

- [그림 7]과 [그림 8]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브라질의 소득불평등도와 소비불평등도 간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, 조사기간 동안 소비불평등도는 소득불평등도를 상회하고 있음.
 - 특히 [그림 7]에 따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소비의 격차보다 적기 때문에 소득과 소비 측면에서 저소득 가구가 겪는 재정적 압박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.
 - 이러한 결과는 [그림 8]의 고소득층과 중산층 비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.

② 주요 재화별 소비불평등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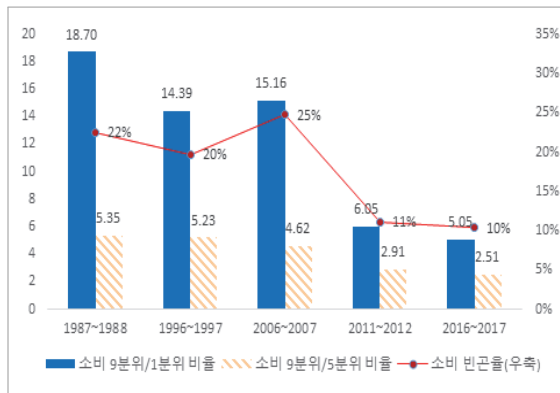
- [그림 9]에 따르면 식료품, 주류, 담배가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동 재화에 대한 칠레의 가구 소비불평등(9분위/1분위)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 반면, [그림 10]은 주거비, 주거관리비, 광열수도비에 대한 소비불평등(9분위/1분위)은 2006~07년과 2011~12년 사이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.
 - 필수재인 식료품, 주류, 담배 등에 대한 소비 격차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 재화에 대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시사함.
 - 반면 주거비, 주거관리비에 대한 소비 격차 감소는 동 재화에 대한 저소득층의 지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
 - 2006~07년 주거비, 주거관리비, 광열수도비에 대한 지출은 28,987칠레페소였으나 2011~12년에 81,517칠레페소로 급증하였음.

그림 9. 칠레: 식료품, 주류, 담배에 대한 소비 빈곤율 및 소비불평등



자료: 칠레의 가구예산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.

그림 10. 칠레: 주거비, 주거관리비, 광열수도비에 대한 소비 빈곤율 및 소비불평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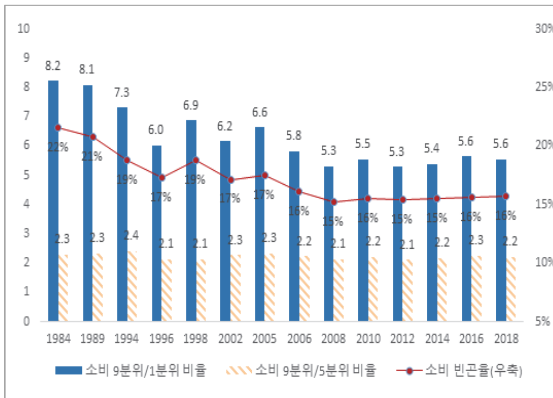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칠레의 가구예산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.

● [그림 11]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식료품, 주류, 담배에 대한 소비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8년부터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, [그림 12]의 주거비, 주거관리비, 광열수도비에 대한 소비 빈곤율은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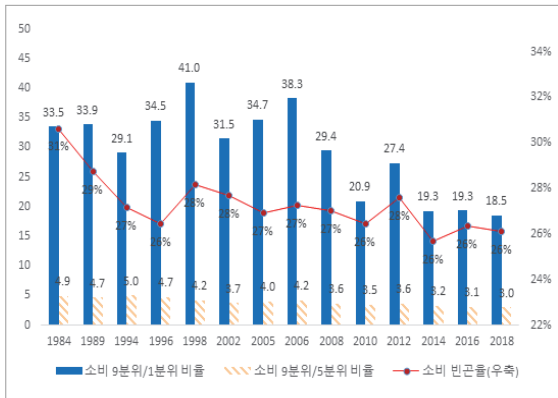
- 주거비, 주거관리비, 광열수도비에 대한 소비 빈곤율이 낮다는 것은 동 재화에 대한 저소득층의 지출 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함.
 - 주거비, 주거관리비, 광열수도비가 필수재에 대한 지출이라면 고소득층이 지출을 줄였을 가능성 보다는 저소득층의 지출액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음.

그림 11. 멕시코: 식료품, 주류, 담배에 대한 소비 빈곤율 및 소비불평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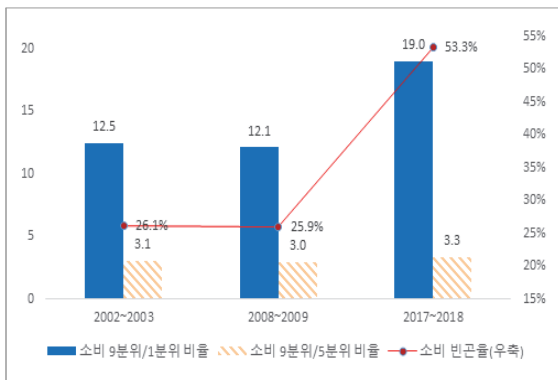
자료: 멕시코의 가구소득지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.

그림 12. 멕시코: 주거비, 주거관리비, 광열수도비에 대한 소비 빈곤율 및 소비불평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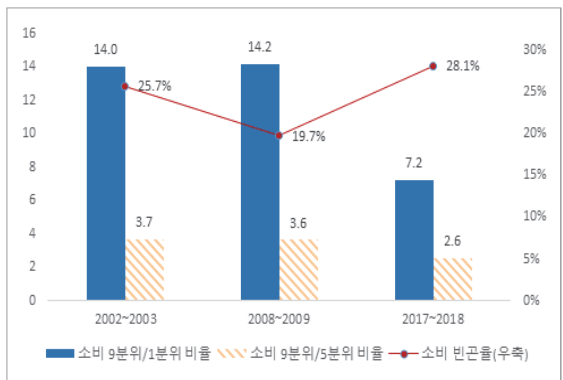
자료: 멕시코의 가구소득지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.

그림 13. 브라질: 식료품, 주류, 담배에 대한 소비 빈곤율 및 소비불평등



자료: 브라질의 가구예산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.

그림 14. 브라질: 주거비, 주거관리비, 광열수도비에 대한 소비 빈곤율 및 소비불평등



자료: 브라질의 가구예산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.

- 브라질의 식료품, 주류, 담배에 대한 소비 빈곤율은 2017~18년에 급등하였고 소비 9분위/1분위 비율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, 이는 동 재화에 대한 빈곤가구의 지출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.
 - 빈곤가구의 2008~09년 식료품, 주류, 담배에 대한 월평균 지출은 271헤알이었으나 2017~18년에는 211헤알로 감소하였음.
- 주거비, 주거관리비, 광열수도비 지출에 대한 소비 9분위와 1분위 간 소비불평등도는 2008~09년과 2017~18년 사이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소비 9분위/5분위 비율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는데 이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임.
 - 동 재화에 대한 빈곤가구의 지출은 2008~09년에 141헤알, 2017~18년에 146헤알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, 전체 가구의 지출은 동 기간 500헤알에서 340헤알로 감소폭이 컸음.

3. 정책 제언

- 중남미의 소득불평등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서로 다른 특징이 관찰됨.
- 따라서 중남미에 대한 ODA 사업이나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(DIP: Development Innovation Program)을 활용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고려 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불평등의 양상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.
 - 칠레에서 성별 간 소득 격차가 가장 낮았고 브라질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음.
 - 브라질의 성별 간 소득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,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뚜렷한 개선이 관찰되지 않았음.
 - 멕시코에서는 저소득층에서 성별 간 소득 격차가 가장 심각하였던 반면, 브라질에서는 고소득층에서 성별 간 소득 격차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음. KIEP